

현장 보고

## 중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싱크탱크

매년 연초가 되면 필자가 근무하는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뉴스 하나가 있다. 전 세계 싱크탱크(Think Tank) 순위 발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sup>1)</sup>이 매년 1만여 개의 전 세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 평가(Global Go To Think Tank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순위에 민감한 한국인이 아닐까봐 이 정보가 공개되면 관련 내용이 한 동안 연구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당연히 평가가 좋게 나오면 기관의 좋은 홍보 소재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2021년 1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필자의 소속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경제정책’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4위, 6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국내 싱크탱크만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평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3.2.202112.513>

<sup>1)</sup> TTCSP, <https://www.gotthinktank.com/> (검색일: 2021. 11. 9).

가하여 매년 그 순위를 발표하는 언론기관이 있다. 한경비즈니스가 매년 대한민국의 100대 싱크탱크를 경제·산업, 정치·사회, 외교·안보로 나누어 그 영향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싱크탱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순위 (TTCSP 조사 자료)

RANK	COUNTRY	NUMBER OF THINK TANKS
1	United States	2203
2	China	1413
3	India	612
4	United Kingdom	515
5	South Korea	412
6	France	275
7	Germany	266
8	Argentina	262
9	Brazil	190
10	Viet Nam	180

출처: TTCSP, [https://repository.upenn.edu/think\\_tanks/18/](https://repository.upenn.edu/think_tanks/18/) (검색일: 2021. 11. 9).

이렇게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나 발표 기관의 홍보효과, 기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싱크탱크가 그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싱크탱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싱크탱크란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말한다.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하는데, 그 형태는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산하

의 싱크탱크와 개인이나 기업체에 의한 싱크탱크, 그리고 일반시민이나 독지가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등이 있다.<sup>2)</sup>

오늘날 이러한 싱크탱크들은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각종 사무를 담당하던 외교는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이 전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가 간 외교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외교, 민간외교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외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싱크탱크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싱크탱크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공공외교와 민간외교 등의 형태로 직접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의 하나이다.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교역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2,434억 달러로 약 43배가 증가했다. 인적교류도 수교 당시 4만 5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약 1,000만 여명에 달해 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50만 여명이었는데, 그 중 중국인이 600만 여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중국은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다. 또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인 만큼, 중국의 對한반도, 對한국 정책 수립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싱크

2) 시사상식사전, “싱크탱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873&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1. 11. 9).

탱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대해 알아본다.

## 2. 중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싱크탱크<sup>3)</sup>

한반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에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중국군사과학원 등이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모두 중앙정부 소속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소속의 싱크탱크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3성의 요녕성 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사회과학원, 흑룡강 사회과학원, 그리고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이 있다. 최근에는 반관반민 형태의 싱크탱크들도 한반도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복단대 등 주요 대학 소속의 연구소와 차하얼학회, 중국국제전략학회, 개혁개방논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동북3성에 위치한 교육기관 중에서 길림대 동북아연구원과 연변대 한반도연구원, 요녕대 한반도연구센터, 그리고 산둥성의 산둥대 한국연구센터 등도 주요한 한반도 연구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싱크탱크와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고 한국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싱크탱크 몇 군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조직 및 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3)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조철 외, 『중국의 대한국 관련 조직 및 인물 분석』,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8; 전병곤·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2; 허재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 언론 사이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SNA를 통한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3(3), 2015, pp. 1-22.).

사회과학원(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을 살펴보자. 중국 사회과학원은 '1977년 5월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창의적인 이론 틀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를 지원하고자'<sup>4)</sup>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중국 내에서 철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최고의 학술기관이자 종합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산하에는 31개의 연구소와 45개의 연구센터가 있으며 여기에서 약 3,200여명의 연구자가 연구와 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 사회과학원에는 석·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산하 연구기관 중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 NIIS: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ASS)과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CASS)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연구기관도 사안에 따라 한반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 두 조직이 한반도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은 1988년 세워진 아태연구소가 전신인데, 2012년에 글로벌전략연구원으로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이 연구원은 학술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와 동남아, 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정치, 안보, 외교, 국제관계, 사회문화 등이다. 따라서 당연히 한반도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원의 원장은 리상양(李尙陽)이 맡고 있고, 그 산하 10개의 부설 연구실과 6개의 연구센터에서 약 60여 명의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조선족 출신이나 한국(북한) 유학파가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

<sup>4)</sup> 百度百科, 中国社会科学院,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7%A4%BE%E4%BC%9A%E7%A7%91%E5%AD%A6%E9%99%A2/6199662fr=aladin> (검색일: 2021. 11. 10).

한편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에서는 월간으로 『당대아태(當代亞太)』라는 중국의 핵심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의 한국연구센터에서는 <당대한국(當代韓國)>이라는 한국 관련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은 북경시 고궁(자금성)의 북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건물이 옛 청나라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고풍스럽다. 필자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분위기에 취해 이런 곳에서 연구하면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정치연구소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정책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에 경제건설 관련 정책건의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80여 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의 경제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제전략연구실 등에서 국제정치경제 또는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산하의 다른 연구기관들도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외교부 산하의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과 국가안전부 산하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은 1956년 중국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1986년에 중국국제문제연구소로 개칭을 했고, 이어 1998년에 외교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변경됐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대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정치경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싱크탱크에서는 중국 내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국제문제연구(國際問題研究)』(격월간, 1959년 창간)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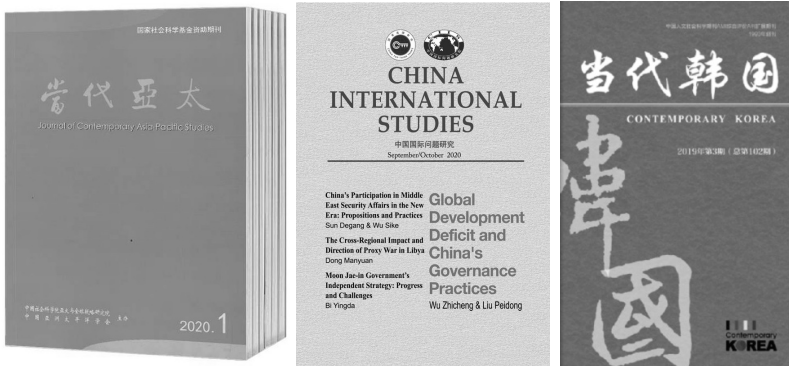
이 연구원 산하에는 7개의 연구소<sup>5)</sup>가 있고 약 60여 명의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태연구소가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태연구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안보문제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는 중국 주변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정책 자문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은 한국의 국립외교원과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 및 세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도 비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등 한국의 싱크탱크와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이 싱크탱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속 연구자들 대부분이 외교관으로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소속 연구자들이 중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약하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5) 국제전략연구소(國際戰略研究所), 미국연구소(美國研究所), 유럽연구소(歐盟研究所), 아태연구소(亞太安全與合作研究所), 개발도상국연구소(發展中國家研究所), 유라시아연구소(歐亞研究所), 세계경제발전연구소(世界經濟與發展研究所)

〈그림 2〉 한반도와 관련한 논문이 자주 게재되는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 발간 학술지



한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국가안전부 산하의 싱크탱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1965년에 비공개 조직으로 설립된 이후, 1980년 국무원의 국가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 공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 ‘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싱크탱크는 국제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의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전략 및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와 정보 분석 자료를 관련 정부부문과 고위층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에 13개의 연구소와 2개의 연구실, 그리고 7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연구실이 한반도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기구 중의 하나인 중앙외사공작위원회(中央外事工作委员会)의 외사판공실과 국가안전부로부터 동시에 관할을 받고 있고, 외사판공실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



다. 그런 만큼 정책적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이 기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대학 캠퍼스 같은 크기였다. 다만 출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해서 대학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재 이 싱크탱크는 외교부의 중국국제문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싱크탱크들과 활발한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통일연구원 및 세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교류가 활발하다.

그 밖에 대학 등 교육기관 소속의 싱크탱크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가 일반적이고, 정부기관 소속의 싱크탱크에 비해 정책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싱크탱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반도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특정 분야와 영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의 경우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CCIEE: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과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AMR: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CAITEC: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 DRC: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등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비교적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3. 특징

중국의 싱크탱크 유형은 정부 소속과 대학 및 학회 등의 반관반민, 그

리고 민간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정부와의 관계나 설립 목적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민간보다는 반관반민이, 그리고 반관반민보다는 정부 소속 싱크탱크가 정책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반관반민과 민간 싱크탱크는 비록 정책 영향력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부 소속 싱크탱크보다 좀 더 자유롭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반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수도권인 북경과 경제중심지인 상해,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접해있는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경 소재의 싱크탱크들은 정책적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관변적 성격이 강하고, 상해 소재의 싱크탱크들은 정책적 영향력이 북경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국제적 시각이 좀 더 부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북3성의 싱크탱크들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협력 문제, 북한에 대한 정보력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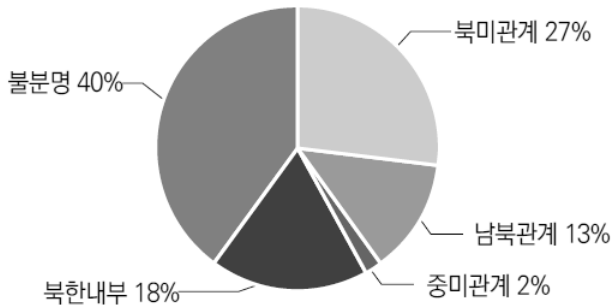
필자는 몇 년 전에 중국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한반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 적이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중국 언론에 노출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발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었다. 그 결과 당시 한중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었던 사드문제와 북핵 문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 서해불법어업 문제, 한미동맹, 한일관계(위안부) 등이 많이 언급 됐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한중일 FTA와 반도체 문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슈 중에서 한중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드 문제와 관련해

서는 뤼차오(呂超, 21회)와 리둔추(李敦球, 18회), 왕권성(王俊生, 13회), 정지용(鄭繼永, 11회), 양시위(楊希雨, 7회) 등의 견해가 언론에 높은 빈도로 노출됐었는데, 뤼차오는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소속의 연구원이고, 리둔추는 중국 절강(浙江)대학 한국연구소 연구원이며, 왕권성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정지용은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양시위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이었다. 여기에서도 앞서 언급한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 소속 연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연구자들 중에서 상당수(46%)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반도 연구자들은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미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그림 3〉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인식  
(중복선택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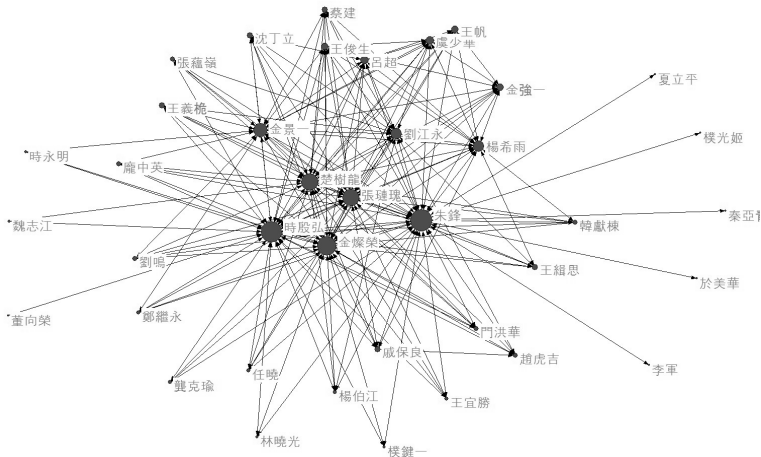


출처: 조철 외, 『중국의 대한민국 관련 조직 및 인물 분석』,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8, 259쪽.

<sup>6)</sup> 기타 다른 이슈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바람. 조철 외, 『중국의 대한민국 관련 조직 및 인물 분석』,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8.

한편, 한국의 언론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sup>7)</sup>

〈그림 4〉 한국 언론에서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출처: 허재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 언론 사이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SNA를 통한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3(3), 2015, 15쪽.

중국 사회가 다양화 되어 감에 따라 한반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소수의 전문가에 주목하여 그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주로 한국에 우호적인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한국 언론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로 중국의 대학 소속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었다. 중국 국내에서 정부 소속 싱크탱크가

7)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허재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 언론 사이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SNA를 통한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3(3), 2015, 1-22쪽.

정책 영향력이 좀 더 높다고 평가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주로 대학 소속 싱크탱크 연구자를 통해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소속 싱크탱크의 연구자들보다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한국 언론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중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연구자)에 있어서 흥미로운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조철 외, 『중국의 대한국 관련 조직 및 인물 분석』,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8.  
전병근·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통일  
연구원 연구총서, 2012.

허재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 언론 사이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SNA를  
통한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3(3), 2015, 1-22쪽.

TTCSP, <https://www.gotothinktank.com/> (검색일: 2021. 11. 9).

TTCSP, [https://repository.upenn.edu/think\\_tanks/18/](https://repository.upenn.edu/think_tanks/18/) (검색일: 2021. 11. 9).

시사상식사전, “싱크탱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873&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1. 11. 9).

百度百科, 中国社会科学院,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7%A4%BE%E4%BC%A7%E7%91%E5%AD%A6%E9%99%A2/619966?fr=aladdin> (검색일: 2021. 11. 10).

### 허재철(Heo, Jai-Chul)

---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실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3년 중국 인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의원 비서관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JSPS 박사후 연구원 등을 거쳐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중국의 현대 외교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관계이다. 특히, 미디어와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국제관계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글로벌 미디어의 특성 및 외교적 역할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Modern China's Summit Network」,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본 한중관계: 텍스트 및 매체 차원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Networks Between Korean News Media and Korea Specialists Abroad: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Korea Specialist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동북아 평화 협력과 공적 사과의 문제: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